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427~456

#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수행 : 소속회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손주연 · 이혜숙 · 강민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수행 : 소속회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손주연\*, 이혜숙\*\*, 강민아\*\*\*

### 초 록

과학기술정책인 동시에 인력정책이며 여성정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체에 대한 소속회원들의 인식과 기대는 어떠한가? 이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단체의 역할과 역할수행방식, 기대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단체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고학력 전문가로 구성된 이익집단인 동시에 여성과학자의 위상과 역할강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대체로 심포지움이나 토론회 등 학술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조사결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집단적인 이해나 문제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모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회원들은 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전문인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자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전문가집단, 정책참여, 역할, 역할수행방식, 여성과학기술인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jyson@kofst.or.kr, 02-3420-1314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hslee@wiset.or.kr, 02-6411-1004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minahkang@ewha.ac.kr, 02-3277-4100

## I. 서론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ruer, 1984; GAO, 2004; Huyer, 1998; Lagesen, 2007; Osborn, 1994). 최근 들어 학제 간 연구에서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나 사업수행에 더 유리하거나 어울린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더 큰 맥락에서 관계를 살피거나 집단작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hote & Pfirman, 2006). 더욱이 IT, BT, NT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성이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조경호·문미경·진종순, 2008)이 등장함에 따라 우수한 여성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기술분야는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타 분야에 비해 맡게 되는 지위나 역할도 낮다(Bruer, 1984; Osborn, 1994; 박홍주, 2004; 손소영·장인상, 2005). 게다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대다수는 아직까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같은 공학계열 보다는 생물, 식품영양, 의류 같은 자연계열에 집중되어 있으며(손소영 & 장인상, 2005), 그나마도 고용안정성이 낮고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 전문인력이 축소되는 ‘파이프라인 축소현상’을 보이고 있다(박홍주, 2004; 이혜숙 외, 2011:18~19).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에 의해 인력활용이나 개발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남녀 과학기술인의 ‘젠더격차’는 과학분야 인력활용에 대한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GAO, 2004; Huyer, 1998; Lagesen, 2007; 이은경, 2001; 조혜선, 2003). 과학기술분야 인력육성 및 활용에 있어 이러한 젠더격차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성들의 저 대표성과 심각한 경력단절 현상이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Bruer, 1984; Osborn, 1994; 조현대 외, 2003).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나 지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 관념, 사회문화적 분위기, 부모의 영향, 역할모델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어 왔으나(이은경,

2001) 이와 더불어 제도적 차별을 정책 이슈화하여 여성과학기술인<sup>1)</sup>의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여성을 대표하여 집단적으로 정부에 다양한 정책요구를 제시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 일반 여성단체(남윤인순, 2006; 라미경, 2005; 조현옥, 2008)와는 대조를 이룬다. 여성 지위개선이나 고용차별 등 다양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여성정책은 대개 일반 여성단체<sup>2)</sup>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단체의 역할은 1980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윤석인, 2000; 조현옥, 2005),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을 대표하여 여성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이나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형성이나 수립 과정에서 일반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sup>3)</sup>,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여성단체의 연계나 지원, 혹은 협력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성과학기술인은 자신의 고유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특성상, 자기자신의 경력개발을 집단이나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어서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화되어 있지 않고(Yee, 1977) 개인적 특성이 강한

1) 여성과학기술인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2) 이 글에서는 일반 여성단체와 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제시한 여성단체와 달리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연구의 주요대상이었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정현백(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운동은 80년대 이후부터 증폭되었으며, 대체로 여성과 관련된 인권법(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모성보호 확대, 할당제 도입과 평화/통일 운동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운동(페미니스트 단체)은 전반적인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노동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슈는 중요한 이슈로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집단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는 다른 사회과학분야보다 고급여성인력이 적지만 동시에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저 임금과 승진기회가 낮다는 공통의 특성을 지닌다(Valian, 2007).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장벽은 여타 여성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여성과학기술인 전체와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집단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여성단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들 단체가 실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하였는가 등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전문인력 육성정책이자 동시에 성평등 정책 혹은 여성정책의 한 분야로서 다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적 요구를 집결하여 적극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단체의 역할에 대한 여성과학인들의 인식과 기대는 어떠한가? 이러한 집단들이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기대하는 역할 간에는 혹시 간극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단체가 향후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 : 이익집단 혹은 NGO

일반적으로 단체(정부기구를 제외하고)는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이하 NGO)로 구분할 수 있다(Brock, 2006; Dunleavy, 1988; Hovekamp, 1997; Martin, 1990; Merton, 1958; Shafer & Owsen, 2003; Pearce, 1993; Vakil, 1997; Walker, 1983; Willetts, 2002; 김찬동·윤형호, 2006; 박동서, 2000; 주성수, 2004). 그러나 이익집단과 NGO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나며 완전히 합의된 개념도 아니고(Pearce,

1993; Vakil, 1997) 학자에 따라 종류와 범주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이익집단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정책적 결과를 추구하려고 모인 사람이나 조직의 집합체를 말하며(Birkland, 2005:81),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류지성, 2008:99). 이러한 이익집단은 집합적 행동을 추구하는 다수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자발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조직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특징을 지닌다(Dunleavy, 1988).

한편, NGO는 국가나 시장이 아닌 제3의 섹터에서 자원활동을 통하여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Willetts, 2002; 김병완·민현정, 2002; 김준기, 2006; 박상필, 2001), 정부기구(GO)와 대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NGO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는데(Pearce, 1993; Vakil, 1997; 박상필, 2001), 실제 NGO와 시민단체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백승현, 2002), NGO 혹은 NPO(Non-Profit Organization), PV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등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Vakil, 1997). 흔히 시민단체가 NGO, NPO, 시민사회단체(CSO) 등 다양한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념이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sup>4)</sup>. 이러한 NGO의 역할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외적·대내적 역할로 분류하거나(김병완·민현정 2002), 역할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김미 외, 2005)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단체는 NGO에 속하는 단체로 볼 수 있으나, 여성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분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준기(2006)는 여성단체

4) 예를 들어 박상필(2006)은 한국 비영리단체(NPO)의 유형을 크게 공익단체와 집단의 이익 추구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희연(2000)은 NGO를 공적 이해 실현을 위한 NGO, 직능 집단, 동호회, 기타 자발적 조직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유형분류를 살펴보면 매우 비슷한 단체들이 다른 범주에 속해 있거나 조금 더 세분화된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유형은 학자와 분류기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이러한 유형보다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박상필(2006)은 불교, 천주교 등의 단체를 공익단체 중에서도 종교단체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단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분류기준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나눌 수 있다.

를 NGO보다는 시민사회단체(CSO)로 분류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대변적 비정부조직으로 보고 있다<sup>5)</sup>. 주성수(2004)는 여성단체를 시민사회단체(CSO) 안에서 분류하고는 있으나 그는 여성단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배타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조직(PBO, Public Benefit Organization)보다는 회원조직(MBO, Membership Benefit Organization)의 성격이 더 강한 단체로 보았다. 또한 여성단체가 일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익조직(PBO)이 되면서 동시에 회원조직(MBO)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주성수, 2004).

한편,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여성의 권익을 추구하는 여성단체로서 NGO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가조직은 전문화된 직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하며(Brock, 2006), 전문가의 입장을 보호하고 구성원을 지지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추구한다(Hovekamp, 1997; Shafer & Owsen, 2003).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도 회원의 입장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 여성단체로 정의하고 NGO에 가깝다고 평가한다면 이 단체가 가진 전문가적 특성 즉, 이익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배제하게 되고 반대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 전문가 이익집단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들이 가진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추구하고 같은 공적인 NGO의 특성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 이익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특성이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exander(2006)는 이익집단을 11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단일이슈 집단, 무역연합, 노동조합, 정부 간 기구, 전문가집단, 시민권 집단, 종교집단, 농업집단, 공공이익집단, 기업, 싱크탱크, 자선집단이

5) 여기에는 민주화단체, 소비자·생활단체, 여성단체, 청년(보호)단체, 법·행정·정치개혁 관련 단체, 인권단체, 평화·통일·민족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빈민단체, 노동·농어민단체, 국제단체 등이 속한다.

포함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이익집단에 해당한다. Walker(1983)는 구성원에게 특정한 전문적인 직업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에 기초한 집단과 시민집단으로 구분하고 직업에 기초한 집단을 다시 영리집단과 비영리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직업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집단으로 구분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단순히 회원들을 기반으로 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단체는 분야가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될 뿐, 일반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익과 여성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는 공익단체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를 전적으로 NGO 단체나 이익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두 단체의 성격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성격은 때때로 전문가인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과학기술분야의 전체 여성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역할이나 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은 여성단체나 여타 이익집단의 역할이나 정책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단체에 대한 기존의 유형화 방식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든 성격을 가지며 이들의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Candler(1999)도 이와 비슷한 물음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는 표면적으로는 이익집단(또는 시민단체)으로 분류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적(혹은 공적) 이해만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이 때로는 혼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단체와 과학기술여성단체가 모두 여성의 권익을 추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이나 활동방식이 각 단체들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여성과학기술단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여성의 권익



을 추구하는 공익적 성격도 가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기존에 흔히 이해되는 방식의 NGO와 이익집단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NGO와 이익집단의 특성이 서로 포섭하는(혼용되는)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단체들이 실제 여성과학기술인 개인의 요구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들 바탕으로 향후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과 2012년의 조사를 통해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변화하였는지, 단체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요구나 기대가 변화하였는지도 분석하였다. 조사시점을 2007년과 2012년으로 설정한 것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 지 5년, 10년 되는 시점에서 단체의 역할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증조사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와 회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실시하였다. 여성과총은 2003년도에 설립되어 비교적 신생조직이지만 회원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합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과총은 2007년 당시 17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 현재 37개 회원단체를 소유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확장되었다.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단체에 대한 기대와 요구 사항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 포함된 문항은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연구 및 일반적인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단체장 및 단체와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주로, 여성 과학단체에 대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인지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익집단이자 전문가단체인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유형만을 가지고 분석할 경우 단체의 성격이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에 이익단체이자 전문가단체로서의 특성을 유사하게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역할과 성격을 분석한 김미 외(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 및 활동범위를 회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김미 외(2005)가 적용했던 단체의 역할유형, 역할수행방식, 단체 성격분류의 3가지 측면에서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단체의 역할유형은 쟁점발굴, 서비스 공급, 대변자, 계몽자, 혁신자, 견제자, 중개·중재자, 이익표출, 정책결정참여 등 9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로, 단체 역할수행방식에 관하여 대중매체 보도, 공식적 정책제안, 항의집회 및 시위, 성명서 발표 등 단체 소속회원을 포함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역할을 '대외적 역할수행'으로 분석했으며, 대시민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마련, 대내외 토론, 단체 내 토론모임 등 단체 소속회원을 중심으로 한 역할을 '대내적 역할수행'으로 재구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수행 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성격을 전문가 중심성, 정치활동참여, 정치적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추구 성격', 회원참여도, 재정적 안정성, 역할분담 정도, 사업의 지속성, 결과만족도를 중심으로 '안정성', 시민적 지지도, 자율성, 공익성, 언론활용정도는 '공공적 성격'으로 대분류하여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성격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 및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7년 7월~9월초까지 그리고 2012년 8월~10월까지 진행하였다. 2007년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이메일과 홈페이지 설문조사)과 직접 배포 설문,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고, 총 265부를 수거하여 이 중 209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2년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이메일 조사)을 실시하였고 총 223부를 수거하여 이 중 2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SPSS 1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분석 결과

### 1. 응답자 개요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40대 이상이 59.4%로 많았고 박사재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66.0%였으며, 교수·연구원·대학강사 등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가 67.9%로 나타나 고학력의 여성과학기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과 2012년 응답자는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실제로 응답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학원 재학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박사학위 재학이나 박사 졸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서는 2012년도 응답자들의 연령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의 경우 3~40대 응답자가 많은 반면, 2012년 응답자는 4~50대 응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이 속한 단체의 성격을 크게 이학, 공학, 보건,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학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2007년 42.6%와 2012년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 종합·기타에 속한 응답자가 증가한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응답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표 4〉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2007년	2012년	전체
연령	20대	33(15.9)	29(14.4)	62(15.2)
	30대	56(27.1)	48(23.9)	104(25.5)
	40대	72(34.8)	49(24.4)	121(29.7)
	50대 이상	46(22.2)	75(37.3)	121(29.7)
	전체	207(100.0)	201(100.0)	408(100.0)
학력	대학교 졸업	35(17.8)	16( 7.8)	51(12.5)
	대학원 석사 재학/졸업	42(20.5)	43(21.1)	85(20.8)
	대학원 박사 재학/졸업	125(61.0)	145(71.1)	270(66.0)
	기타	3( 1.5)	-	7( 0.7)
	전체	197(100.0)	204(100.0)	409(100.0)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2007년	2012년	전체
직업	교수/연구원/대학강사	139(66.8)	145(69.0)	284(67.9)
	회사원/엔지니어	45(21.6)	21(10.0)	66(15.8)
	학생/대학원생	8( 3.8)	23(11.0)	31( 7.4)
	의사/간호사	7( 3.4)	11( 5.2)	18( 4.3)
	기타/무응답	9( 4.3)	10( 4.8)	19( 4.5)
	전체	208(100.0)	210(100.0)	418(100.0)
소속 단체	이학	65(31.1)	36(17.1)	101(24.1)
	공학	89(42.6)	76(36.2)	165(39.4)
	보건/의료	24(11.5)	22(10.5)	46(11.0)
	종합/기타	31(14.8)	76(36.2)	107(25.5)
	전체	209(100.0)	210(100.0)	419(100.0)

## 2. 단체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기대와 인식

### 1) 단체역할에 대한 인식

단체의 역할유형은 김미 외(2005)가 제시한 시민단체의 역할유형<sup>6)</sup>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2007년에 비해 2012년에 소속단체가 다양한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잘한다+매우 잘한다)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체가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9가지 역할 유형 중에서 본인이 속한 단체가 계몽자의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다고(52.2%)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대변자(42.6%)와 쟁점발굴자(42.3%)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6) 각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쟁점발굴자(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거나 발굴하는 역할), 서비스 공급자(일반시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대변자(개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역할), 계몽자(계몽역할 수행), 혁신자(개혁 선도자로서의 역할), 견제자(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 중개·중재자(정부와 개인의 중개 및 중재 역할), 이익 표출자(이익추구 역할), 정책결정 참여자(정책결정 참여 역할)

〈표 5〉 소속 단체의 역할 유형

단위: 명(%)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쟁점 발굴자	못함	44 (21.4)	16 (7.9)	60 (14.7)	서비스 공급자	못함	71 (34.5)	34 (16.8)	105 (25.7)
	보통	100 (48.5)	76 (37.4)	176 (43.0)		보통	79 (38.3)	84 (41.6)	163 (40.0)
	잘함	62 (30.1)	<b>111</b> <b>(54.7)</b>	173 (42.3)		잘함	56 (27.2)	84 (41.6)	140 (34.3)
	합계	206 (100.0)	203 (100.0)	409 (100.0)		합계	206 (100.0)	202 (100.0)	408 (100.0)
	X <sup>2</sup> =30.198, p-value=.000					X <sup>2</sup> =18.754, p-value=.000			
대변자	못함	63 (30.6)	17 (8.4)	80 (19.6)	계몽자	못함	41 (19.9)	15 (7.4)	56 (13.7)
	보통	79 (38.3)	75 (37.1)	154 (37.7)		보통	79 (38.3)	60 (29.7)	139 (34.1)
	잘함	64 (31.1)	<b>110</b> <b>(54.5)</b>	174 (42.6)		잘함	86 (41.7)	<b>127</b> <b>(62.9)</b>	213 (52.2)
	합계	206 (100.0)	202 (100.0)	408 (100.0)		합계	206 (100.0)	202 (100.0)	408 (100.0)
	X <sup>2</sup> =38.679, p-value=.000					X <sup>2</sup> =22.524, p-value=.000			
혁신자	못함	51 (24.8)	18 (9.1)	69 (17.1)	견제자	못함	106 (51.7)	50 (24.6)	156 (38.2)
	보통	90 (43.7)	78 (39.4)	168 (41.6)		보통	85 (41.5)	100 (49.3)	185 (45.3)
	잘함	65 (31.6)	<b>102</b> <b>(51.5)</b>	167 (41.3)		잘함	<b>14</b> <b>( 6.8)</b>	53 (26.1)	67 (16.4)
	합계	206 (100.0)	198 (100.0)	404 (100.0)		합계	205 (100.0)	203 (100.0)	408 (100.0)
	X <sup>2</sup> =24.689, p-value=.000					X <sup>2</sup> =44.012, p-value=.000			
중개· 중재자	못함	68 (33.2)	27 (13.4)	95 (23.3)	이익 표출자	못함	68 (33.0)	29 (14.4)	97 (23.8)
	보통	87 (42.4)	73 (36.1)	160 (39.3)		보통	84 (40.8)	100 (49.8)	184 (45.2)
	잘함	50 (24.4)	<b>102</b> <b>(50.5)</b>	152 (37.3)		잘함	54 (26.2)	72 (35.8)	126 (31.0)
	합계	205 (100.0)	202 (100.0)	407 (100.0)		합계	206 (100.0)	201 (100.0)	407 (100.0)
	X <sup>2</sup> =36.689, p-value=.000					X <sup>2</sup> =19.585, p-value=.000			
정책 결정 참여자	못함	82 (40.0)	32 (16.1)	114 (28.2)					
	보통	92 (44.9)	85 (42.7)	177 (43.8)					
	잘함	<b>31</b> <b>(15.1)</b>	82 (41.2)	113 (28.0)					
	합계	205 (100.0)	199 (100.0)	404 (100.0)					
	X <sup>2</sup> =45.145, p-value=.00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조사결과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역할유형 전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응답자들은 9가지의 역할 중에서 계몽자의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41.7%), 이는 대체로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의 특성으로 인해 관련 분야의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을 보인다. 반면, 소속단체 회원들은 특히 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33.0%의 응답자들이 이익표출자 역할에 대해서, 51.7%의 경우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40.0%의 응답자들은 정책결정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2012년 조사에서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쟁점발굴과 대변자 역할, 계몽역할 및 혁신과 중개·중재자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이익 표출자나 정책결정 참여자 역할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8%와 41.2%로 다른 역할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전문 지식을 통해 쟁점을 발굴하거나 계몽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반면, 시민단체로써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하고 이익단체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단체 성격에 대한 인식

소속단체의 성격은 크게 1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단체의 사업이 지속적이라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문가 중심성 62.4%,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 60.1%, 공익성 59.7%, 자율성 58.7%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여성과학기술인 단체가 사업의 지속적인 성격이 높으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속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전문가 중심성이 강화되었고(2007년

51.0% → 2012년 74.0%) 타 단체나 기관 등 외부의 지지도가 상승했으며(2007년 28.2% → 2012년 45.5%) 회원들의 참여도 증가했다고(2007년 42.1% → 2012년 62.5%)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체의 공익적 성격도 증가했고(2007년 53.0% → 2012년 66.5%)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 증가했다고(2007년 23.8% → 2012년 38.2%) 인식하는 등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속단체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조사결과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소속단체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지속성이 높고(67.8%), 단체의 활동은 공익적 성격이 많으며(53.0%), 단체운영이 회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52.0%) 응답하였다. 반면에 47.8%의 응답자들이 단체의 운영과 홍보에서 언론을 자주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42.8%의 응답자들은 단체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다고 응답했고 34.7%의 응답자들은 정부위원회 등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2012년도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증가해 2007년과 비교해서 단체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단체의 전문가 중심성이 증가하고(74.0%) 단체의 사업이 지속적이며(75.6%) 사업결과에 만족한다는(71.9%)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적 지지도는 27.5%에 불과했으며, 언론활용을 잘한다는 응답도 37.5%로 낮았고 정부위원회 등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다는 응답도 38.2%로 낮게 나타났다.

〈표 6〉 소속 단체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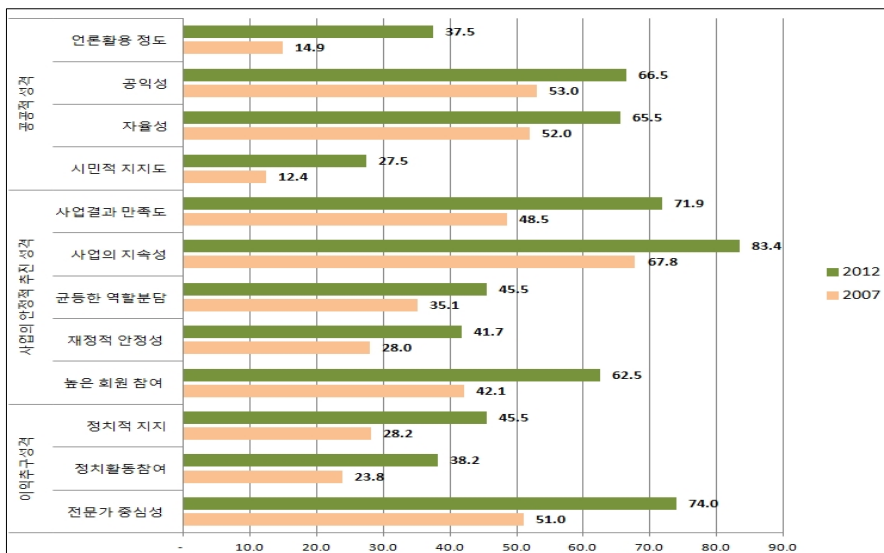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전문가 중심성	그렇지 않음	20 (9.9)	4 (2.0)	24 (6.0)	높은 정치적 활동 참여	그렇지 않음	70 (34.7)	31 (15.6)	101 (25.2)
	보통	79 (39.1)	48 (24.0)	127 (31.6)		보통	84 (41.6)	92 (46.2)	176 (43.9)
	그런편	103 (51.0)	148 (74.0)	251 (62.4)		그런편	48 (23.8)	76 (38.2)	124 (30.9)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합계	202 (100.0)	199 (100.0)	401 (100.0)
	X <sup>2</sup> =26.292, p-value=.000					X <sup>2</sup> =21.724, p-value=.000			
높은 외부 지지도	그렇지 않음	50 (24.8)	25 (12.6)	75 (18.8)	높은 회원 참여	그렇지 않음	36 (17.8)	8 (4.0)	44 (10.9)
	보통	95 (47.0)	83 (41.9)	178 (44.5)		보통	81 (40.1)	67 (33.5)	148 (36.8)
	그런편	57 (28.2)	90 (45.5)	147 (36.8)		그런편	85 (42.1)	125 (62.5)	210 (52.2)
	합계	202 (100.0)	198 (100.0)	400 (100.0)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X <sup>2</sup> =16.512, p-value=.000					X <sup>2</sup> =26.752, p-value=.000			
재정적 안정성	그렇지 않음	54 (28.0)	35 (17.6)	89 (22.7)	균등한 역할 분담	그렇지 않음	57 (28.2)	21 (10.6)	78 (19.5)
	보통	85 (44.0)	81 (40.7)	166 (42.3)		보통	74 (36.6)	87 (43.9)	161 (40.3)
	그런편	54 (28.0)	83 (41.7)	137 (34.9)		그런편	71 (35.1)	90 (45.5)	161 (40.3)
	합계	193 (100.0)	199 (200.0)	391 (100.0)		합계	202 (100.0)	198 (200.0)	400 (100.0)
	X <sup>2</sup> =10.202, p-value=.006					X <sup>2</sup> =19.869, p-value=.000			
사업의 지속성	그렇지 않음	9 (4.5)	1 (0.5)	10 (2.5)	사업 결과 만족도	그렇지 않음	19 (9.4)	7 (3.5)	26 (6.5)
	보통	56 (27.7)	32 (16.1)	88 (21.9)		보통	85 (42.1)	49 (24.6)	134 (33.4)
	그런편	137 (67.8)	166 (83.4)	303 (75.6)		그런편	98 (48.5)	143 (71.9)	241 (60.1)
	합계	202 (100.0)	199 (200.0)	401 (100.0)		합계	202 (100.0)	199 (100.0)	401 (100.0)
						X <sup>2</sup> =23.591 p-value=.000			
시민적 지지도	그렇지 않음	86 (42.8)	40 (20.0)	126 (31.4)	자율성	그렇지 않음	22 (10.9)	13 (6.5)	35 (8.7)
	보통	90 (44.8)	105 (52.5)	195 (48.6)		보통	75 (37.1)	56 (28.0)	131 (32.6)
	그런편	25 (12.4)	55 (27.5)	80 (20.0)		그런편	105 (52.0)	131 (65.5)	236 (58.7)
	합계	201 (100.0)	200 (100.0)	401 (100.0)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X <sup>2</sup> =29.195, p-value=.000					X <sup>2</sup> =7.925, p-value=.019			
공익성	그렇지 않음	26 (12.9)	9 (4.5)	35 (8.7)	높은 언론 활용	그렇지 않음	96 (47.8)	52 (26.0)	148 (36.9)
	보통	69 (34.2)	58 (29.0)	127 (31.6)		보통	75 (37.3)	73 (36.5)	148 (36.9)
	그런편	107 (53.0)	133 (66.5)	240 (59.7)		그런편	30 (14.9)	75 (37.5)	105 (26.2)
	합계	202 (100.0)	200 (100.0)	402 (100.0)		합계	201 (100.0)	200 (100.0)	401 (100.0)
	X <sup>2</sup> =12.017 p-value=.002					X <sup>2</sup> =32.392, p-value=.000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단체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 53.0%에서 2012년 66.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지지도는 2007년 12.4%에서 2012년 27.5%로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활동이 일반 시민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과학기술단체가 타 단체나 일반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과의 교류나 관계도 약하고 다른 단체나 일반 시민 등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 자신들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단체의 성격을 크게 ‘이익추구 성격’, ‘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격’, ‘공공적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1〉 참조),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격’에 대한 응답이 다른 성격에 대한 응답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공적 성격’과 관련한 응답에서 시민적 지지도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공익성 항목은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소속단체의 성격 변화

\* 그런편(그렇다+매우그렇다)의 응답만 활용함

### 3. 단체역할에 대한 분석결과

#### 1) 단체의 역할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주된 역할 수행방식은 단체 이름으로 대내외 토론에 참여하거나(43.5%)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41.9%), 단체 내 토론모임을 운영하는 것(3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항의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잘하는 편, 14.8%) 성명서 등을 발표하거나(잘하는 편, 18.3%)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방식(잘하는 편, 21.8%)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속 단체의 역할 수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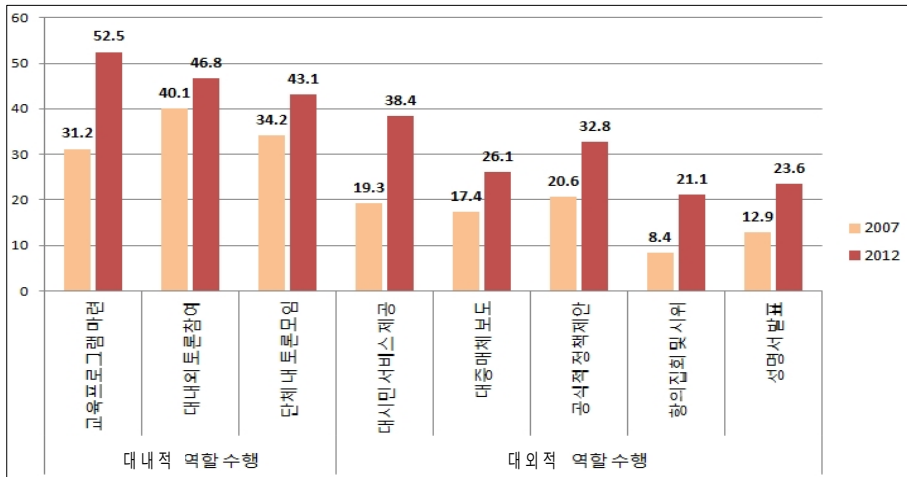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구분		2007년	2012년	전체
교육 프로 그램 마련	못함	60 (29.7)	34 (16.7)	94 (23.2)	단체 명으 로 대내외 토론 참여	못함	31 (15.3)	27 (13.3)	58 (14.3)
	보통	79 (39.1)	63 (30.9)	142 (35.0)		보통	90 (44.6)	81 (39.9)	171 (42.2)
	잘함	63 (31.2)	107 (52.5)	170 (41.9)		잘함	81 (40.1)	95 (46.8)	176 (43.5)
	합계	202 (100.0)	204 (100.0)	406 (100.0)		합계	202 (100.0)	203 (100.0)	405 (100.0)
	X <sup>2</sup> =20.373, p-value=.000								
단체내 토론 모임	못함	49 (24.3)	29 (14.2)	78 (19.2)	대시민 서비스 제공	못함	84 (41.6)	35 (17.2)	119 (29.4)
	보통	84 (41.6)	87 (42.6)	171 (42.1)		보통	79 (39.1)	90 (44.3)	169 (41.7)
	잘함	69 (34.2)	88 (43.1)	157 (38.7)		잘함	39 (19.3)	78 (38.4)	117 (28.9)
	합계	202 (100.0)	204 (100.0)	406 (100.0)		합계	202 (100.0)	203 (100.0)	405 (100.0)
	X <sup>2</sup> =7.471, p-value=.024					X <sup>2</sup> =33.890, p-value=.000			
대중 매체 보도	못함	95 (47.3)	65 (32.0)	160 (39.6)	공식적 정책 제안	못함	76 (39.2)	44 (21.6)	120 (30.2)
	보통	71 (35.3)	85 (41.9)	156 (38.6)		보통	78 (40.2)	93 (45.6)	171 (43.0)
	잘함	35 (17.4)	53 (26.1)	88 (21.8)		잘함	40 (20.6)	67 (32.8)	107 (26.9)
	합계	201 (100.0)	203 (100.0)	404 (100.0)		합계	194 (100.0)	204 (100.0)	398 (100.0)
	X <sup>2</sup> =10.554, p-value=.005					X <sup>2</sup> =16.421, p-value=.000			
항의 집회 및 시위	못함	123 (60.9)	94 (46.1)	217 (53.4)	성명서 발표	못함	110 (54.5)	70 (34.5)	180 (44.4)
	보통	62 (30.7)	67 (32.8)	129 (31.8)		보통	66 (32.7)	85 (41.9)	151 (37.3)
	잘함	17 ( 8.4)	43 (21.1)	60 (14.8)		잘함	26 (12.9)	48 (23.6)	74 (18.3)
	합계	202 (100.0)	204 (100.0)	406 (100.0)		합계	202 (100.0)	203 (100.0)	405 (100.0)
	X <sup>2</sup> =15.327, p-value=.000					X <sup>2</sup> =17.818, p-value=.000			

단체의 8가지 역할수행 방식에 대한 분류(대시민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대내외 토론, 단체 내 토론모임, 대중매체 보도, 공식적 정책제안, 항의집회 및 시위, 성명서 발표)를 소속회원을 포함해 외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외적 역할수행(대중매체 보도, 공식적 정책제안, 항의집회 및 시위, 성명서 발표,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단체 소속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내적 역할 수행(교육프로그램 마련, 대내외 토론, 단체 내 토론모임)’으로 재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대체로 대내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번에 걸친 조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전반적으로 대내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2007년에 비해 오히려 대내적인 역할 수행방식을 잘 한다는 응답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멘토링, 경력복귀 프로그램이나 예비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대체로 토론모임이나 교육 등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고학력의 전문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학술중심의 단체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는 집회나 항의, 성명서 발표, 대중매체의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비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주로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조사결과에서 시민들의 지지도가 약하다는 응답과 연계해 볼 때, 단체 자체의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외부적 활동이나 네트워크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그림 3〉 연도별 소속단체의 역할수행 방식 변화

\* 잘 하는 편(잘한다+매우 잘한다)의 응답만 활용함

## 2) 단체 역할에 대한 기대

앞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대체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술중심·자체 회원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속회원들은 여성과학기술인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역할수행을 바라고 있는가? 이들도 학술중심의 역할수행을 기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8〉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

단위 : 명(%)

응답 (소속단체별*)	<2007년 조사결과>			
	이학	공학	보건/기타 (미소속 포함)	합계
여성 과학 기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성	10(14.7)	26(26.3)	8(19.5)	44(21.2)
사회적 역할	4(5.9)	9(9.1)	2(4.9)	15(7.2)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14(20.6)	11(11.1)	4(9.8)	29(13.9)
연구사업 진행 등 학술지원	17(25.0)	8(8.1)	7(17.1)	32(15.4)
압력단체로 회원단체를 대표해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요구	11(16.2)	27(27.3)	14(34.1)	<b>52(25.0)</b>
기타	12(17.0)	18(18.2)	6(14.6)	36(17.3)
전체	68(100.0)	99(100.0)	41(100.0)	208(100.0)
응답 (소속단체별)	<2012년 조사결과>			
	이학	공학	보건/기타 (미소속 포함)	합계
여성 과학 기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성	14(20.9)	12(16.4)	11(17.5)	37(18.2)
기업체, 다른 단체와의 공동·연계사업 실시	9(13.4)	14(19.2)	10(15.9)	33(16.3)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13(19.4)	14(19.2)	10(15.9)	41(20.2)
다른 단체나 기업체와의 연계 강화	3(4.5)	13(17.8)	9(14.3)	25(12.3)
압력단체로 회원단체를 대표해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요구	25(37.3)	18(24.7)	15(23.8)	<b>58(28.6)</b>
취업정보나 연구동향 등의 정보제공	3(4.5)	2(2.7)	4(6.3)	9(4.4)
전체	67(100.0)	73(100.0)	63(100.0)	20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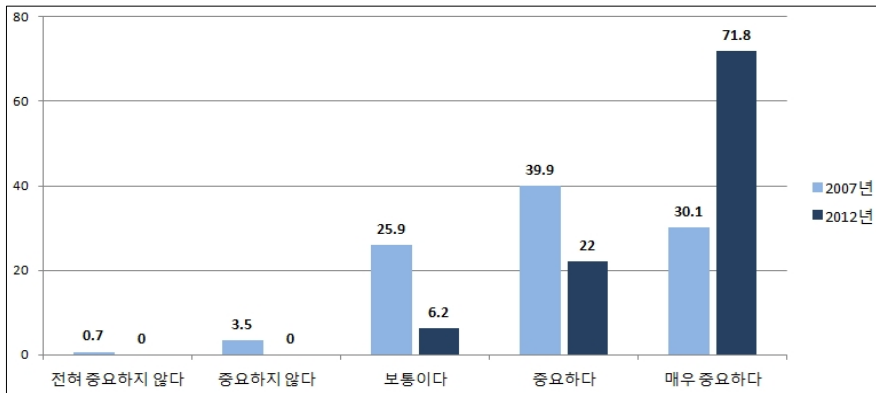
\* 분야별 구분은 과학기술부(2006)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학 28개, 이학19개의 기준을 중심으로 나누었으며, 이외에 의학과 간호학 등은 '보건'으로 구분하였고 위의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여성과중에 소속된 여성 과학기술단체는 공학관련 단체가 4개, 이학관련 단체가 7개, 보건관련 단체가 2개 그리고 기타 단체가 4개로 분류되었다.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타'와 '보건'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2007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25.0%는 '압력단체로서 회원단체를 대표해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요구'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21.2%의 응답자는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조사된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주로 수행하는 역할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여성과학기술인은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학술적 지원'이나 '과학기술인 육성'과 같은 역할보다는 압력단체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성격이 전문적인 학술단체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비해서 소속 회원들은 이익집단으로써의 역할과 성격을 보다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속단체별로 나누어서 응답을 살펴보면, 공학과 보건·기타 응답자의 경우에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학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구산업 진행 등 학술지원(25.0%)’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선택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2012년 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 회원들은 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해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할 것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6%), 특히 이학단체 소속 회원들의 응답(37.3%)이 타 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학단체 소속 응답자들은 2007년 조사에서는 ‘연구사업 진행 등 학술지원(25.0%)’이 단체가 수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압력단체로서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역할(37.3%)’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사회적 공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2012년 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1.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향상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국가 전체의 연구능력개발 향상(27.8%)’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개인 능력 개발(17.6%)’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단체의 공익성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반대중에 전문지식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과학기술분야에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성단체로서 미래세대 여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연도별 단체의 사회적 공헌 중요성에 대한 인식

〈표 9〉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

단위 : 명(%)

응답	2012년
여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향상	86(42.0)
일반인에게 과학관련 교육 참여기회 제공	22(10.7)
국가 전체 연구능력개발 향상	57(27.8)
여성과학기술인의 개인 능력 개발	36(17.6)
일반인에게 과학관련 정보 제공	3(1.5)
기타	1(0.5)
전체	205(100.0)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12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2007년도 응답자의 25.6%는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여성참여를 확  
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뒤를 이어 ‘일-가족 양립지원정  
책 확대’라는 응답이 21.6%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소속단체에 따라  
서도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과학  
기술정책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그 다음으로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확대’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확대적용’이라고 응답하였다.

2012년 결과에서도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여성참여 확대’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응답이 22.1%로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확대’가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20.1%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응답자 대부분이 4~50대로 인해 육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응답자 대다수가 교수·연구원·대학강사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요구가 줄었을 수도 있다.

〈표 10〉 가장 시급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단위: 명(%)

응답 (소속단체별)	<2007년 조사결과>				<2007년 조사결과>			
	이학	공학	보건/기타 (미소속 포함)	합계	이학	공학	보건/기타 (미소속 포함)	합계
여성 과학기술인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11 (16.4)	6 (9.6)	5 (14.2)	22 (11.0)	16 (24.2)	11 (15.3)	14 (21.2)	<b>41</b> <b>(20.1)</b>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확대적용	10 (14.9)	14 (14.9)	6 (15.7)	30 (15.1)	9 (13.6)	10 (13.9)	13 (19.7)	32 (15.7)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여성참여 확대	17 (25.4)	25 (26.6)	9 (23.7)	<b>51</b> <b>(25.6)</b>	16 (24.2)	17 (23.6)	12 (18.2)	<b>45</b> <b>(22.1)</b>
기업체와의 연계 활동 강화	11 (16.4)	6 (6.4)	6 (15.8)	23 (11.6)	2 (3.0)	4 (5.6)	1 (1.5)	7 (3.4)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	4 (6.0)	8 (8.5)	3 (7.9)	15 (7.5)	8 (12.1)	8 (11.1)	10 (15.2)	26 (12.7)
여성 고급인력 양성 지원	3 (4.5)	7 (7.4)	2 (5.3)	12 (6.0)	4 (6.1)	6 (8.3)	3 (4.5)	13 (6.4)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확대	11 (16.4)	25 (26.6)	7 (18.4)	<b>43</b> <b>(21.6)</b>	5 (7.6)	6 (8.3)	3 (4.5)	14 (6.9)
전체	67 (100.0)	94 (100.0)	38 (100.0)	199 (100.0)	66 (100.0)	72 (100.0)	66 (100.0)	204 (100.0)

## V. 결론

한국의 일반 여성단체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여성 이슈를 발굴하고 정치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윤석인, 2000; 조현옥, 2005) 양성평등을 진척시키고 여성권익



을 향상시키며,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영란, 2004; 라미경, 2005), 특히 정치세력화를 통한 직·간접적인 활동은 여성과 관련된 많은 법의 제정이나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 여성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등(심영희, 1999)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러한 성과는 공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Bruer, 1984; Osborn, 1994; 박홍주, 2004; 손소영 & 장인상, 2005). 여성과학기술인은 자신의 영역에 대해 철저한 학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의 문제로 경력단절, 저 대표성, 낮은 지위와 일-가족 갈등 등의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일반 여성단체의 활동사례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과학 기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당면한 문제를 집단적 차원으로 수렴하여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단체는 성평등정책 측면과 전문인력육성 정책 측면 양면에서 볼 때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익집단이자 사회적인 공헌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nheier(2000)는 비영리 조직과 전문가 단체가 종종 역할규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지적한다. Anheier에 의하면 이러한 단체들은 전문가(profession) 단체회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지자 역할과 회원들을 규제(regulating)함으로써 사회적 선(social good)을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이분법적인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이러한 이중적 역할에 추가하여 여성단체로서의 성격까지 덧붙여진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이 단체들은 여성 과학자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일반 여성단체와 유사한 아젠다를 추가하는 동시에, 고학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단체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삼중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될 수 있다. 만약 전문가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 개인 여성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이 경험하는 문제(조직 내 성차별,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출산이나 양육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동시에 여성단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조직과 재정, 인적자원의 취약성 등(한정자, 2004)의 특징은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자체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실증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이러한 삼중적 역할 중 어떤 것에서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 머무르거나 혼재된 상태에 있으며 회원들의 기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예, 정책대안 제시, 시위, 성명서 발표 등)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해관계나 요구 등이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요구사항이나 다양성, 이해 등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를 향해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심영희(1999)는 여성단체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두 가지 역할로 압력단체로서의 기능과 여론형성을 통한 담론화 기능을 제시했는데, 현재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활동범위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결국, 삼중적 역할이 요구되는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이나 역할은 대체로 심포지움이나 토론회와 같은 학술적 역할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체 간 협력강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합의된 요구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항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이와 같은 현황은 현재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기대하는 단체의 역할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대체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술중심·자체 회원 중심의 계몽역할은 잘 수행하지만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이익단체로써 정책결정 참여에 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소속회원들이 이들 단체에 기대하는 사항은 이러한 현실과 무척 큰 괴리가 있었다. 소속회원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의 역할은 ‘압력단체로서 회원단체를 대표해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요구’를 하는 것과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여성과학기술단체가 공익적 성격이나 전문가 중심의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압력단체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기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단체로서 전문분야에만 한정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사회와 과학기술을 여성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연계하여, 새로운 관점과 지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여성단체가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유도한 반면, 아직까지 여성과학기술인단체는 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직면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단체가 향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미 · 민현정(2005). “보건의로 시민단체의 역할 및 역할수행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1):49-71.
- 김병완 · 민현정(2002). “한국 NGO의 역할유형에 관한 경험적 분석: NGO 활동가들의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6(4):231-256.
- 김준기(2006). 정부와 NGO. 서울: 전영사.
- 김찬동 · 윤형호(2007). “NGO의 역할과 정체성 비교: 고령자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NGO연구. 4(1):77-107.
- 남윤인순(2006). “여성운동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진단과 좌표찾기: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찾기 위한 비전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 라미경(200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211-232.
- 류지성(2008).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 박동서(2000). “한국 NGO의 활동방향”.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NPO)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8(2) 159-182.
- 박상필(200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 3의길: 지방자치단체와GO 간의협력”.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1(0). 777-794.
- 박상필(2006).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 박홍주(2004).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3):67-97.
- 백승현(2002). “한국의 시민단체(NGO)와 공공성 형성”. 시민정치학회보. 5:221-231.
- 손소영 · 장인상(2005). “사회 Network를 고려한 여성과학기술인 만족도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31(1):44-55.
- 윤석인(2000). “한국여성NGO의 민주성과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2001). 과학기술과 여성의 정책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혜숙 외(20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교육과학기술부.

- 정현백(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분단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41-42.
- 주성수(2004).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2006).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사회단체와 이익집단: 캘리포니아 주민 발안 투표 사례”. 한국비영리연구. 5(2): 55-83.
- 조경호 · 문미경 · 진중순(2008). “여성과학기술인 승진목표제와 운영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
- 조현대 외(2003).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한국기술정책연구원.
- 조현옥(2005). “한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NGO특강자료집.
- 조현옥(2008). “한국의 여성정책결정에 여성운동이 미친 영향”.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여성정치패널.
- 조혜선(2003). “과학기술 연구인력 보상체계의 성 차별성”. 한국사회학. 37(3):83-107.
- 조희연(2000). “민주주의이행과 집단행동”.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
- Alexander, R.M.(2006). The classics of interest group behavior.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irkland, T.A.(2005). Unofficial Actors and Their Roles in Public Policy.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M.E. Sharpe Inc.
- Brock, D.M.(2006). The changing professional organization: A review of competing archetyp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8(3):157-174.
- Bruer, J.T.(1984). Women in Science: Toward Equitable Participation.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9(3): 3-7.
- Candler, G.G. (1999). Interest Groups and Social Movements: Self- or Public Interested? Insights from the Brazilian Third-Sector Literature.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0(3):237-253.
- Dunleavy, P.(1988). Group Identities and Individual Influence: Reconstructing the Theory of Interest Group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1):21-49.
- GAO.(2004). Women's Participation in the Sciences Has Increased, but Agencies Need to Do Mo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itle IX.

- Hovekamp, T.M.(1997). Professional Associations or Unions? A Comparative Look. *Library Trends*., 46(2):232-244.
- Huyer, S.(1998). Engender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Case of the Gender, Science and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2(2), 269-292.
- Lagesen, V.A.(2007). The strength of numbers: strategies to include women into computer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37(1):67-92.
- Martin, P.Y.(1990). Rethinking Feminist Organizations. *Gender and Society*. 4(2):182-206.
- Merton, R.K. (1958), "The Functions of the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58(1): 50-54.
- Osborn, M.(1994). Status and Prospects of women in science in Europe. *Science, Nes Series*. 263(5152):1389-1391.
- Pearce, J.(1993). NGOs and social change: Agents or facilitators?. *Development in Practice*. 3(3):222-227.
- Rhote, D. & Pfirman, S.(2006). Women in interdisciplinary science: Exploring preferences and consequences. *Research Policy*. 36:56-75.
- Shafer, W.E., & Owsen, D.(2003). The role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 CPA Journal*.
- Vakil, A.C.(1997). Confronting the classification problem: Toward a taxonomy of NGOs. *World Development*. 25(12):2057-2070.
- Valian, V.(2007). Women at the Top in Science and Elsewhere. Why Aren't More Women in Science?. Stephen J. Ceci and Wendy M. Williams(eds.).
- Walker, J.L.(1983).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Interest Groups in Americ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2):390-406.
- Willetts, P.(2002). What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lectronic Version], from <http://www.ihrnetwork.org/files/3.%20What%20is%20an%20NGO.PDF>.
- Yee, C.Z.(1977). Do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Need the Women's Movement?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2(3):125-128.

## Abstract

# **Roles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Ju-Yeon Son, Hye-sook Lee, Min-ah Kang

The policy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is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a part of gender equality policy. What kind of role do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play? Do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dvocate their concerns? Do they play a crucial role in policy-making process? What are the perceptions of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towards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umerous researching methods to find the solutions about those questions.

Women's organiz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dual roles: to improve members' rights as interest groups as well as to focus on social contribution as non-interest groups. However, they focus on the academic activities, for example symposium, conference and open forum etc, these dual roles are overlooked.

Survey results show that member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in S&T hope these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more actively and have more connections with society. This means that women's organizations in &ST have to rethink their role and change the relationship with society.

**Keywords ;** women's organizations in S&T, professional interest group, gender issue in S&T